

'여행가는 달' 태권도원 이벤트 풍성

입장료 할인·플레이원 시범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30일까지 태권도원 입장료 할인,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 관련 '특별 태권스테이' 운영, 야외 복합 체험시설 '플레이원'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한 건강한 일상 회복 및 지역관광 확대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매년 태권도진흥재단도 동참하고 있다.

태권도원은 6월 한 달간 입장료와 모노레일 탑승료를 50% 할인해 기존 성인 기준 4천원인 입장료가 2천원으로, 2천원의 모노레일 탑승료가 1천원으로 할인 운영된다. 소셜커머스 등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판매중인 '태권스테이' 상품도 10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대회와 연계해 '국제대회 태권스테이' 특별 상품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특별 상품은 화려한 개막식 참가와 프랑스, 호주, 중국 등 세계 15개국 출전 선수들이 펼치는 태권도 세계대회 관람의 기회가 주어져 태권도의 생생한 현장감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여행주간에는 야외 복합 체험시설인

'플레이원'을 6월 매 주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총 200미터 길이의 플레이원은 주먹 피하기, 공격 발차기, 출렁다리 건너기 등 태권도 동작과 연계한 놀이시설로 태권스테이 고객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고, 당일 방문고객은 10시, 14시, 15시 등 지정된 시간대 현장발권을 통해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 기간 T1경기장을 중심으로 미술쇼와 서커스, 타악 공연, 비보이 공연 등이 펼쳐지며 국립태권도 박물관에서는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이 26일까지 진행,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가득해 방문객의 즐길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겨루기 국제대회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등 국내 여행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다"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코로나에 지친 일상에 색다른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기간 2022. 6. 2. - 6. 30.
2022년 여행가는 달 맞이 태권도원 여행 혜택 안내

혜택1. 태권도원 할인
 ■ 태권도원 입장료 50% 할인(6. 2. - 30.)
 - 일반공역(대인2,000원), 청소년(1,750원), 소인(1,500원)
 - 단, 세계태권도(6.10.-12.) 기간은 무료입장
 ■ 모노레일 이용료(1인) 일일 1,000원 이용

혜택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 대회 관람가능
 ■ 세계대회 기간 동안 태권도원 무료입장(6.10.-12.)
 ■ 다양한 관람형 이벤트 운영(6.11.-12.)
 - 이벤트: 비보이, 타악공연, 서커스, 미술쇼
 - 운영시간: 10시 - 12시, 14시 - 15시
 - 운영장소: T1경기장 및 야외광장
 ■ 세계대회 연계 '태권스테이' 운영(6.10.-12.)
 - 세계대회 관람 및 개막식 등 부대행사 관람 가능

혜택3. 장소별 볼거리&즐거거리
 ■ T1경기장 - 태권도원 상설공연, 1일 2회(14시, 14시, 관람가능인원 368명)
 ■ 체험관(Y-PI - VR/AR 체험 공간)
 ■ 국립태권도박물관 -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박물관에서 만난 부처님)
 ■ 플레이원 - 주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시범운영, 현장예약 가능

태권도진흥재단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30일까지 태권도원 입장료 할인,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 관련 '특별 태권스테이' 운영, 야외 복합 체험시설 '플레이원'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여름 담은 공예' 기획할인전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여름 담은 공예' 기획상품전을 진행한다

기획상품전에는 식기, 액세서리, 부채 등 공예품 20여 종으로 구성됐다.

주요 상품으로 컵, 소주잔, 접시 등 유리 소재를 활용한 식기류가 있으며, 액세서리는 원석으로 제작한 '팔찌', 칠보공예 펜던트 '목걸이', 여름용 시원한 '스카프' 등이다. 이외에도 '부채', '바다빛 곱반침' 등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 줄 공예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가격은 10% 할인가로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상당 공예품까지 다양하다.

기획상품을 포함해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버블 유리 화병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는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된다.

김혜원 팀장은 "행사 타이틀 '여름 담은 공예'는 올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공예품이란 콘셉트로, 여름 더위는 공예품에 담고, 주변에는 시원함만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여름나기 공예품으로 올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상품전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매는 현장 및 온라인 쇼핑몰 명인몰(www.jsh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 '단오야 필봉가자' 개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임실필봉농악 정기발표회

임실군이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이하여 오는 4일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풍성한 국판이 벌어질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은 매해 정월달이면 정기발표회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최근 2년간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였고 더욱이 올해는 국판을 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로 제41회째를 맞이한 임실필봉농악 정기발표회 '단오야 필봉가자'는 당산제, 샘굿,

마당밧이와 같은 마을굿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뒷구인 노래굿, 돌굿, 수박치기굿, 등지기굿도 연행된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뒷구인 백미라 할 수 있는 도둑잡이굿과 털머리굿도 선보일 예정이다.

단오를 맞아 창포물에 머리감기, 족욕하기, 단오선 부채 만들기, 화채 나눠 먹기 등의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박주원 밴드 X 정엽 콘서트 '집시기타와 소울'

김제문화예술회관, 17일 대공연장서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한국 최고의 집시 기타리스트와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의 콜라보 공연인 '박주원 밴드 X 정엽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니발, 슬픔의 피에스타 등 박주원 밴드가 들려주는 신들린 기타 연주와 R&B의 진수를 선사하는 정엽의 감미로운 목소리도 마성적인 목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009년 데뷔 후 한국 음악계에 집시 기타 열풍을 일으킨 기타리스트 박주원은 보는 이들의 눈을 땀는 미술작품 킥거림이 매우 독보적이며 6장의 앨범을 통해 작곡과 연주 외에 탁월한 싱어송라이터로 팬 지지층이 확고하다. 네이버 선정 '올해의 앨범', '재즈피플'의 리더스폴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타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기타의 젊은 거장, 한국의 파코 데 투치야'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공연 객석을 압도해 매우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 정엽은 2003년 브라운아이드 소울의 리더로 데뷔 땀들 창법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시그니처송 '똑같은다면', '비켜줄게' 등 수 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MBC '서바이벌 나이스 가수'에 출연해 주현미의 '작사왕', 김건모의 'You Are My Lady' 등 소울 가수로 입지를 굳혔으며 현재 SBS 러브FM 1P가게를 진행중이다. 송성용 문화홍보특별재정장은 "초여름 6월



첫 공연은 시민들께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재즈와 집시, 소울 음악으로 힐링하셨으면 한다"며 "한국 음악계 보물같은 최고 뮤지션과 함께 색다른 희열과 감동을 직접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되며, 관람권 예매는 6월 7일(화)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기 가족 뮤지컬 시작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아는 만큼 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1기 가족뮤지컬 수업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지역 문화기반시설 교육공간 활용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화예술경험 등을 추구한다.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장의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소질 개발 노력과 가족, 친구들과의 문화 활동 속에서 유대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가족뮤지컬, 가족클래식, 전시, 국악, 가족형 뮤지컬을 기수별 30명~40명씩 5기수 총 180명이 수강할 예정이며 기수당 4회씩 운영한다.

1기 가족뮤지컬 수업은 부모와 함께 공연장 관람예절, 뮤지컬의 특징, 4대 뮤지컬 알아보기 등을 수강하고 주크박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공연 관람 및 출연진과의 만남을 통해 뮤지컬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다. /군산=김관문 기자

202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아는 만큼 고고!!!(보고 듣고 즐기고)
 2022년 6월 11일(토) ~ 10월 29일(토)
 매주 토요일 군산예술의전당 일원

2022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내용

기수	수업기간	항목	수업시간	수업장소	수업대상
1기(1차)	06.11 ~ 07.02	가족뮤지컬	14:00 ~ 15:00	꿈다락	초등학생
2기(1차)	07.02 ~ 07.30	가족클래식	14:00 ~ 15:00	꿈다락	초등학생
3기(1차)	08.06 ~ 08.27	전시	14:00 ~ 15:00	꿈다락	초등학생
4기(1차)	08.06 ~ 08.27	국악	14:00 ~ 15:00	꿈다락	초등학생
5기(1차)	10.01 ~ 10.29	가족뮤지컬	14:00 ~ 15:00	꿈다락	초등학생

*본 프로그램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imje.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06.10 ~ 10.29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imje.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06.10 ~ 10.29입니다.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